

한국에서 베누티의 번역이론의 전이와 수용*

이 영 훈
(고려대)

1. 서론

한국에서 번역학은 학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1998년에 탄생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1998년 4월에 통번역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국내 최초의 번역학 학술단체인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현 통역번역학회)가 창립되었고, 같은 해 7월에 ‘번역학’의 제목을 단 최초의 저술(김효중, 『번역학』, 민음사)이 발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번역학은 사반세기(四半世紀)의 역사를 자랑하며, 현재 총 4개의 유관 학회²⁾와 총 8종의 전문학술지³⁾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5년의 역사 동안 한국의 번역학은 거의 전적으로 서구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 본 연구는 2023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1) 서구 번역학사와 연계된 한국 번역학의 역사에 관해서는 졸고(이영훈 2013)를 참고하기 바란다.
- 2) 창립 연도 순에 따라 통역번역학회(1998), 번역학회(1999), 통번역교육학회(2003), 고전번역학회(2009)가 현재 활동 중이다.
- 3) 발간 시작 연도 순으로 『통번역학연구』(1997),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1999), 『번역학연구』(2000), 『동화와 번역』(2001), 『통번역교육연구』(2003), 『고전번역학』(2009), 『T&I Review』(2011), 『번역·언어·기술』(2020)이 매해 간행되고 있다.

학술적 활동과 이론적 탐구를 진행해 왔으며, 한국 번역학의 전사(前史)라 할 수 있는 역학(譯學), 불경 및 한문고전 번역의 전통, 그리고 개화기 및 해방 전후의 서구에 대한 번역 경험을 아우르는 한국적 번역학의 추구는 아직도 요원한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반세기를 시작하는 지금에 지난 25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서구 번역이론들이 어떤 경로로 국내로 유입되고 수용되었는지, 한국 번역학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체계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번역학의 특수성(AB 방향성, 번역 인플레이션, 중역 등)⁴⁾에 기반한 연구 주제 및 방법론의 개발을 위해 서구 번역 이론들에 대한 주제적 수용과 비판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더불어, 서구 번역이론의 주요 유입 경로인 번역학 학술서의 기존 번역에 대한 번역 비평과 서구로부터 차용한 번역학 용어의 번역에 대한 성찰도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에 우리는 본고에서 서구의 대표적 번역학자⁵⁾인 로렌스 베누티(Lawrence Venuti)를 대상으로 그의 번역이론의 국내 전이(轉移, transfer)⁶⁾와 수용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베누티(1953~)는 중세 영국문학을 전공⁷⁾으로 1980년 미국

4) 그동안 국내에서는 한국어가 소수 언어라는 주장 하에 한국어로의 번역보다는 한국어로부터의 번역, 즉 AB번역을 주된 교육 및 연구 대상으로 삼아 왔다. 또한 1995년 7월 WTO협정에 따른 국제저작권 협약이 발효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해외 서적의 번역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예를 들어 프랑스 소설들 가운데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Antoine de Saint-Exupéry)의 *Le petit prince*가 300여 종 이상,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의 *L'Étranger*가 150여 종 이상의 번역을 기록하는 등 번역 인플레이션 현상이 국내에 심화되어 있다. 그 밖에 일본을 통한 근대화와 미국을 거친 세계화 과정으로 인해 해외 서적의 일어 또는 영어를 통한 중역 관행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5) 주세페 팔롬보(Giuseppe Palumbo)가 2009년 저술에서 꼽은 ‘주요 번역학 사상가(Key Thinkers in Translation Studies)’ 10명 가운데 베누티(Palumbo 2009: 182-185)가 포함되어 있다.

6) 문화간 이동을 나타내는 영어 명사 transfer의 대응어로 ‘이전’ 및 ‘전이’ 모두가 가능하나 ‘이전(移轉)’은 기존 장소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것(예: 본사 이전)을 말하는 반면, ‘전이(轉移)’는 원산지로부터 그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것(예: 암의 전이)을 가리키므로 본고에서는 ‘전이’를 해당 개념어로 채택하였다. 사실 베누티의 번역이론은 발상지인 영미권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국내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한 셈이다.

콜롬비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템플대학교에서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영어영문학과(Department of English)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같은과 명예교수로 활동 중⁸⁾이다. 그의 이러한 이력은 표면상 번역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그는 1986년 ‘번역가의 비가시성’에 관한 학술논문⁹⁾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번역학과 관련된 60여 편의 논문, 4권의 단독 저서, 3권의 편저서를 발표¹⁰⁾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카탈로니아어 문학 작품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유수의 번역상을 다섯 차례나 수상¹¹⁾한 전문 번역가¹²⁾이기도 한데, 그의 문학번역 활동은 국내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베누티는 아래와 같이 총 4권의 번역이론서를 단독 저서로서 출간한 바 있다. 그중 1995년에 발표된 *The Translator's Invisibility*는 2008년 제2판이 출간되었고, 2018년 새로운 서문과 함께 라우틀리지 출판사의 ‘번역고전총서’에 포함되어 재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 책의 파급력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다.

제목	출간 연도	비고
<i>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i>	1995	1 st edition
	2008	2 nd edition
	2018	reissued with a new introduction in Routledge Translation Classics series
<i>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i>	1998	
<i>Translation Changes Everything: Theory and Practice</i>	2013	
<i>Contra Instrumentalism: A Translation Polemic</i>	2019	

7) ‘The Cavaliers in Love: Erotic Poetry at the Court of Charles I’.

8) 템플대학교 홈페이지상의 소개에 따르면 베누티는 번역 이론·역사·실무, 영화 각색, 시 형식 및 실천의 역사, 근대 영미 및 비교 문학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9)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Criticism* 28(2): 179-212.

10) LAWRENCE VENUTI — Google Scholar.

11) Lawrence Venuti — Temple University, College of Liberal Arts.

12) 영문판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그는 1980년부터 2019년 사이 총 17권의 문학 번역서를 출간하였다.

위 네 저술들을 통해 베누티의 번역이론의 근간이 된 핵심어들은 ‘번역가의 비가시성(translator’s invisibility)’, ‘번역 윤리(translation ethics)’, ‘소수화 번역(minoritizing translation)’, ‘잔여태(remainder)’, 번역 전략으로서의 ‘자국화(domestication)’ 대(對) ‘이국화(foreignization)’, 번역 지향으로서의 ‘유려 번역(fluent translation)’ 대(對) ‘저항 번역(resistant translation)’, 번역 모형으로서의 ‘도구적 모형(instrumental model)’ 대(對) ‘해석적 모형(hermeneutic model)’ 등을 꼽을 수 있다.

베누티가 단독 집필한 네 권의 번역이론서들 가운데 1990년대 출간된 초기 두 저서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번역되어 출간됨으로써 그의 번역이론이 갖는 국제적 영향력이 입증된 바 있다. 그의 두 저술이 번역된 현황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저명	역서명	언어	년도
<i>The Translator's Invisibility</i> (1995)	<i>L'invisibilità del traduttore: una storia della traduzione</i>	이탈리아어	1999
	『译者的隐形: 翻译史论』	중국어	2009
	<i>A invisibilidade do tradutor: Uma história da tradução</i>	포르투갈어	2021
<i>The Scandals of Translation</i> (1998)	<i>Escândalos da tradução: por uma ética da diferença</i>	포르투갈어	2002
	<i>Gli scandali della traduzione: per un'etica della differenza</i>	이탈리아어	2005
	『번역의 윤리: 차이의 미학을 위하여』	한국어	2006
	『翻译之耻: 走向差异伦理』	중국어	2019
	『翻訳のスキヤンダル: 差異の倫理にむけて』	일본어	2022

학문별 이론적 논의에서 번역이 수행하는 국제화의 역할은 번역학 내에서도 상당한 관심¹³⁾을 끌어온 주제이나, 번역이론의 번역 문제와 번역 사상의 국제적 순환에서 번역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진 바가 없다고

13) 대표적인 연구로 프랑스의 문학이론들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유통되었는지를 튀르키예와 미국의 수용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세브넴 수삼-사라예바(Şebnem Susam-Sarajeva)의 2006년 단행본(*Theories on the Move*)이 있다.

볼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베누티의 번역이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국내로 전이되었고, 어떤 양상으로 수용되었는지를 다룬 본 연구가 갖는 또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베누티의 번역이론이 국내로 전이된 과정과 방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한편으로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와 번역학자 앙트완 베르만(Antoine Berman)이 각기 제안한 전이 이론을 준거 틀로 삼았으며,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 문헌 연구를 선택하였다. 그 근거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2.1 부르디외의 해석학적 전이 모델

베누티의 번역이론의 국내 전이 및 수용에 관한 본 연구는 큰 틀에서 “이론은 어떻게 여행하는가?”라는 관심사에 부합되며, 보다 좁게는 “번역 이론은 어떻게 여행하는가?”라는 문제의식과 결부된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는 일찍이 사상 및 이론의 국제적 순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적 조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989년 10월 3일 스위스 프리부르대학교(université de Fribourg) 프랑스연구소 개소식에서 그는 ‘관념의 국제적 순환의 사회적 조건들(Les conditions sociales de la circulation internationale des idées)’이라는 주제로 특강¹⁴⁾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4) 불어로 된 본 특강 원고는 1990년 *Romanistische Zeitschrift für Literaturgeschichte / Cahiers d'Histoire des Littératures Romanes* 14(1-2): 1-10에 처음 게재된 후, 그 영어 번역(“The Social Conditions of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Ideas”)이 1999년 부르디외의 저작 선집(Richard Shusterman (ed.) *Bourdieu. A Critical Reader*, Oxford-Malden: Blackwell Publishers, 220-228)에 수록되었으며, 2002년 부르디외 학과의 학술지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145: 3-8에 불어판 논문이 재록되었다.

“텍스트들은 자신들의 맥락(contexte) 없이 순환하며, 자신들을 생산하는 생산장(champ de production)과 함께 순환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용자들은 스스로가 이 텍스트들과는 상이한 생산장에 속해있기 때문에 다른 생산장에서 넘어온 텍스트들을 수용장(champ de réception) 내 자신들의 위상에 맞추어 재해석한다. 따라서 문화와 관련된 국제관계학은 사례별로 외래문화 수용에 연루된 일련의 사회적 실행들, 특히 선별(무엇을, 누가 번역하고 출판하는가?) 및 표식기입(출판사, 총서, 서문 등) 과정들을 반드시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은 문화 수입을 둘러싼 오해들을 해소하고, 지적(知的) 삶의 진정한 국제화를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를 구성한다.”¹⁵⁾

부르디외의 ‘해석학적 전이 모델(hermeneutic model of transfer)’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의 이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부르디외에 따르면, 공동체 내 지적 삶은 다른 모든 사회적 공간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및 제국주의의 공간이다. 사람들은 흔히 지적인 삶은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지식인들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편견, 고정관념, 사회통념, 그리고 일상의 사건들, 몰이해, 오해, 심리적 상처들로 얼룩진 매우 단순화된 표상들을 여기저기 퍼뜨린다. 따라서 이론 및 사상의 국제적 교류는 여러 가지 오해를 초래하는 두 가지 구조적 요인들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요인은 바로 텍스트가 그 맥락 없이 순환한다는 사실이다. 즉, 지식인들은 사회적 맥락을 담고 있는 외래 텍스트를 마치 ‘순수한’ 텍스트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텍스트의 중개자일 뿐인 번역가를 ‘초월적 주체’로 격상시킨다. 따라서 국제적인 지식 교류에서 발생하는 여러 오해들은 텍스트들이 그 맥락, 다시 말해 — 부르디외의 용어를 빌리자면 — 그 생산장과 함께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론과 사상의 국제적 이동이 엄청난 오해를 초래하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수용자들이 자신들의 생산장과는 상이한 생산장에서 만들어진 외래 텍스트들을 자신들의 수용장의 구조에 맞추어 재해석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국제적 이동의 대상이 되는 한 작품의 의미와 기능을 결정하는데 출발장, 즉 원천장(champ d'origine)은 물론이고 도착장, 즉 수용장(champ d'accueil)도 관여한

15) 본 요지는 부르디외의 2002년판 해당 논문의 별지 요약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천장에서 결정된 외국 작품의 의미와 기능은 흔히 수용장에서 까맣게 잊혀질 뿐만 아니라, 작품의 국가 간 전이는 수용장에서 행해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류의 사회적 실행들을 거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우선, 선별 실행(*opération de sélection*)은 도착국가의 출판장 내에서 번역 및 출판의 대상과 주체를 선별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음으로, 표식기입 실행(*opération de marquage*)은 수입하는 작품에서 원산지의 표식을 제거하고 수용장의 출판사, 총서책임자, 번역가, 서문 작성자를 통해 새로운 표식을 기입하는 단계를 가리킨다. 특히 이 과정에서 — 번역가 자신이든 제3자이든 간에 — 서문작성자는 외국 작품을 소개하면서 이를 전유하고, 자신의 시각과 수용장 내의 문제의식에 병합할 뿐, 원천장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마지막으로, 독서 실행(*opération de lecture*)에 의해서 작품의 국가 간 전이가 완성되는데, 이 단계에서 독자들은 출발지 생산장에서 생산된 작품에 도착지 생산장에서 만들어진 지각 범주들과 문제의식들을 적용하게 된다.

요컨대 부르디외의 해석학적 전이 모델¹⁶⁾에 따르면, 베누티의 번역이론은 수출 국가인 미국에서 수입 국가인 한국으로의 이동 과정에서 원산지 생산장의 맥락이 누락되고, 도착지 수용장의 구조에 맞추어 재맥락화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해보려는 것이 우리의 연구 목표이다.

2.2 베르만의 문학 전이 모형

베누티의 번역이론의 국내 전이 및 수용을 연구하기 위해 우리는 부르디외의 해석학적 전이 모델 외에도 프랑스의 번역학자 베르만의 문학 전이 모형도 참고하였다. 베르만은 자신의 1994년 유작¹⁷⁾에서 문학 작품의 국가 간 이동이 번역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비번역적 형식과 계기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번역적 전이와 비번역적 전이 사이의 관계와 문학적 전이의 전 과정을

16) 지젤 사피로(Gisèle Sapiro, Marco Santoro, Patrick Baert) 등의 2020년 편저(*Ideas on the Move in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는 국가 간 그리고 학문 간 지식의 순환을 부르디외의 지식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대표적 자료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이상길(2011)이 피에르 부르디외를 대상으로, 채웅준(2017)이 질 들뢰즈를 중심으로 학술 번역과 지식수용의 사회적 조건을 분석한 바 있다.

17) *Pour une critique des traductions : John Donne*, Gallimard, 1994, 56-57.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그의 문학 전이 이론을 살펴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외국 문학 작품이 반드시 번역을 통하지 않고서도 한국에서 원작 자체로 읽히거나 그 존재가 알려지기도 하며, 이 작품이 번역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평단이나 학계의 주목을 받고 대학에서 외국문학 수업의 교과자료에 포함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의 향토 문학 규범을 너무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각색된 형식으로 프랑스 문학 작품이 국내에서 원어로 출판될 수도 있다.

베르만에 따르면, 이 단계가 지난 후 — 일반적으로 이 작품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 문학적 포부가 결여된 ‘용감한 소개(introduction)의 시간’이 오고, 이어서 문학적 야심을 가졌으나 대체로 불완전하고 — 흔히 그렇듯 — 결합 투성이인 ‘초역의 시간’이 온다고 한다. 다음에는 초역을 바탕으로 한 (복수)의 재번역(들)이 이어지고, 마침내 작품의 ‘완역 시기’가 도래한다. 그런데 재번역과 완역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일련의 비평 작업이 수반되며, 이러한 일련의 번역 과정과 비평 작업을 통해 ‘정전(canon)으로서의 번역’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실제로 정전 번역이 탄생하면, 이것은 기존의 다른 번역들을 압도하게 되고 때로는 상당 기간 재번역의 사이클을 멈추게 만든다. 베르만은 문학 전이의 본질적 과정이 이런 식으로 완료된다고 보며, 그럼에도 각 단계들은 작품별로, 작품의 영역, 시대, 수용하는 나라의 언어 및 문화 등에 따라 상이하게 분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베르만의 전이 모형은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한국에서는 베누티의 번역 이론서들 가운데 오직 한 권이 그것도 초역만 이루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베누티의 번역이론이 한국으로 전이되는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이해하는데 이 모형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사실, 그동안 번역학과 문화 전이 연구는 상호 무관심 속에 별도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번역학 내에서는 번역을 문화 전이의 한 양상으로 보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반면 문화 연구자들은 비번역적 문화 전이에만 관심을 쏟았다. 게다가 번역과 비번역을 아우르는 문화 전이의 전체적인 사이클을 모형으로 제시한 경우는 베르만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번역적 전이와 비번역적 전이의 구분, 번역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이를 둘러싼 수용의 양상에 대한 베르만의 설명이 우리의 문제와 깊이 연관된다고 보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2.3 연구 방법 및 절차

베누티의 번역이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으로 전이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철저한 문헌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물론, 베누티의 번역이론이 국내 번역학 연구와 번역 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해 번역학자들이나 번역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이들의 인식을 양과 질 면에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번역과 연구를 통해 베누티의 번역이론의 국내 전이와 수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주체들의 입장을 청취하여 이를 분석할 수도 있을 테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후속 연구 내지 다른 연구자들의 몫으로 돌리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베누티의 번역이론이 전이되고 수용된 결과물인 학술 논저, 번역서, 서평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 세부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서지 조사 및 논문 검색을 통해 베누티의 저술이 국내에 번역되고 연구된 현황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베누티의 번역이론이 수용된 과정을 베누티와 그의 이론이 국내 번역학 연구에서 언급되고 인용되기 시작한 소개의 단계부터 본격적인 적용의 대상이 된 도입의 단계 그리고 다른 이론들과의 비교나 비판적 성찰의 대상이 된 성찰의 단계로 나누어 관련 문헌들을 분류하였다. 물론, 이때 베누티의 논저가 한국어로 번역된 사건을 수용 과정을 분류하는데 중심으로 삼았다.

본격적인 분석 단계에서는, 한편으로 학술논저들에서 베누티가 수용자들에게 의해 어떻게 소개되었는지, 베누티 관련 학술 연구들의 핵심어들은 무엇인지, 베누티의 어떤 저술들이 인용되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 베누티의 논저들의 번역자는 누구인지, 역자 서문은 어떤 식으로 제시되었는지, 번역서에 대한 평가나 인식은 어떠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학술 연구나 번역을 통해 전이되고 수용된 베누티와 그의 이론이 국내에서 어떠한 왜곡과 변형을 경험하였는지를 번역과 연구의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다. 다만, 번역서 3종에 비해 연구 문헌, 즉 학술논문들이 절대 다수였던 만큼 이 논문들의 구체적 내용에 나타난 왜곡과 변형에 대한 체계적이고 자세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수행하기 어려웠고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3. 베누티의 번역이론의 국내 전이 및 수용 양상

3.1 베누티의 번역이론의 국내 전이 양상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베누티가 현재까지 발표한 번역학 관련 60여 편의 논문, 4권의 단독 저서, 3권의 편저서 가운데 단독 저서 한 권과 단행본 내 논문 두 편이 한국어로 번역된 것으로 확인된다. 공교롭게도 세 논저 모두 1998년에 영어로 발행된 것으로, 단행본인 *The Scandals of Translation*은 그의 번역학 관련 두 번째 단독 저서이며, 논문 두 편은 모나 베이커(Mona Baker)가 책임 편집한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제1판에 실린 백과사전 항목들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The Scandals of Translation*은 1998년 원저가 발간된 이후 총 5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이 가운데 2006년 간행된 한국어 번역은 시기상으로 포르투갈어(2002), 이탈리아어(2005)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된다. 더구나 중국어와 일본어 번역이 각기 2019년과 2022년에야 비로소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베누티의 이 저술이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초기 과정에 한국이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초판에 대한 한국어 번역은 1999년 창립한 한국번역학회가 서구 번역학 이론 및 용어의 국내 수용을 위해 범학회적 차원에서 야심 차게 시도한 계획이 2009년 결실을 맺은 것으로, 「번역 전략(Strategies of translation)」 및 「미국의 전통(American tradition)」에 대한 베누티의 두 논문¹⁸⁾도 이런 상황에서 번역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은 베누티의 번역이론의 국내 번역 상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18) 2009년 발간된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제2판에는 베누티가 작성한 두 사전 항목들 중 「번역 전략」은 누락되었으나 「미국의 전통」은 갱신된 내용으로 유지되었다.

『번역의 윤리: 차이의 미학을 위하여(<i>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i> , 1998)』, 임호경 옮김, 열린책들, 2006.
『번역전략(Strategies of translation)』 (전현주 옮김), 모나 베이커 (편),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i>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i> , 1st edition, 1998)』, 한신문화사, 2009, 360-365.
『미국의 번역 전통(American tradition)』 (김용권 옮김), 모나 베이커 (편),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i>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i> , 1st edition, 1998)』, 한신문화사, 2009, 446-458.

그렇다면 베누티의 세 저술을 각기 한국어로 옮긴 번역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들의 직업과 경력, 국내 출판장 또는 학술장 내에서 이들의 위상은 어떠하였는가? 이들은 베누티의 저술을 번역을 통해 국내로 전이하는 가운데 어떤 이해관계를 추구하였는가?

먼저, *The Scandals of Translation*의 한국어 번역을 2006년 출간한 임호경은 불문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문학 전문 번역가이다. 번역서의 역자 소개 및 위키백과 한국어판에 따르면, 그는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파리 제 8대학에서 프랑스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지금까지 피에르 르메트르(Pierre Lemaitre), 엠마누엘 카레르(Emmanuel Carrère), 베르나르 베르베르(Bernard Werber), 조르주 심농(Georges Simenon) 등 프랑스 작가들의 작품과 요나스 요나손(Jonas Jonasson), 스티그 라르손(Stieg Larsson) 등 스웨덴 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번역했으며, 대표적인 번역서로는 라르손의 『밀레니엄』 시리즈 전권과 요나손의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베르베르의 『카산드라의 거울』, 심농의 『메그레 경감』 시리즈 등을 꼽는다. 이와 같은 이력에서 우리는 임호경이 전공상으로도 번역학과는 무관하며, 번역 업적 가운데 베누티의 이 저술 외에 다른 번역이론서를 번역한 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베누티의 저서 한국어판을 출간한 출판사 ‘열린책들’은 1986년 설립되었으며, 러시아 문학 전문 출판사로 시작하여 외국문학 번역 출판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번역의 윤리: 차이의 미학을 위하여』는, 출판사 홈페이지 내 분류를 보면, ‘인문·사회과학 — 기타 — 편집·출판·번역’ 범주

에 출판·편집 분야 전문가들 및 잡다한 인문·사회과학자들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 점에서 베누티의 책은 열린책들에서 별도의 기획 하에 전문 총서의 일원으로 출판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문학번역가 임호경은 도대체 어떤 동기에서 베누티의 본 저술을 번역하게 된 것일까?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역자 후기(2006: 348)에 따르면 그는 베누티의 번역 이론 및 윤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때문에 이 책을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백과사전 내 실린 베누티의 두 논문을 번역한 두 사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연구자정보 검색에 따르면, 「미국의 전통(American tradition)」을 옮긴 김용권은 미국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를 역임한 영문학 전문 연구자이다. 또한 그는 한국어판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을 기획한 한국번역학회의 초대 회장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맡은 바 있다. 한편, 「번역 전략(Strategies of translation)」을 옮긴 전현주는 비교문학(영문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신한대학교 국제어학과 영어영문학 전공 교수이며, 번역비평 전문 연구자로 확인된다. 그 또한 이 백과사전 한국어판이 출간된 2009년 한국번역학회 연구이사 직을 맡고 있었다. 요컨대 두 사람 모두 본인의 전공과 참여 학회 활동의 차원에서 베누티의 두 논문을 번역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국내 학계에서 베누티의 번역이론이 전이된 양상을 살피기 위해 그의 이론 관련 국내 논저 현황을 조사하였다. 우선, 국내 학술지 정보 포털인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Venuti’를 키워드로 검색을 하였더니 총 64건의 논문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논문들의 내용을 일일이 검증한 결과 이 가운데 50건에서만 베누티의 번역이론과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자체 조사를 벌여 논저별 제목, 키워드,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에 베누티의 이름이나 베누티 이론의 핵심 개념들이 포함된 경우들을 추가로 찾아 보았다. 그 결과 기존에 확인된 학술 논문들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학위논문 6건(박사 1, 석사 5), 북 챕터 7건, 학술지 수록 논문 56건, 학술대회발표논문집 수록 논문 1건이 관련 자료들로 인정되었다. 이 논저들을 분석해보면, 베누티의 번역이론에 대한 국내 학계의 본격적인 수용은 200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한국번역학회가 2000년에 발간한 학술지 『번역학연구』 창간호에 실린 한 논문¹⁹⁾에서 베누티에 대한 최초의 인용이 발견되지만, 베누티의 이론을

활용한 연구는 2005년에 발간된 3편의 논저를 효시로 꼽을 수 있다. 특히 2005년 이근희의 단행본 『번역산책: 번역투에서 번역의 전략까지』에는 ‘번역의 방법’을 제시한 9명의 번역이론가들 가운데 「로렌스 베누티(Lawrence Venuti)」(80-86)가 포함되어 있으며, 1995년 저서 *The Translator's Invisibility*를 중심으로 그의 두 가지 번역전략(domesticating translation/foreignizing translation)이 비교적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한편, 우리는 총 70편의 베누티의 이론 관련 논저를 대상으로 그의 번역이론의 국내 수용 과정을 3단계로 분류해보았다. 첫 단계는 출현 시기로 최초의 인용부터 베누티의 저작이 번역되기 전인 2000년부터 2005년까지에 해당되며, 베누티의 최초 인용 논문을 포함하여 총 4편의 소논문들이 이 시기에 쓰였다. 두 번째 단계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번역 시기로, 베누티의 1998년 저서 *The Scandals of Translation*과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초판에 실린 두 논문의 번역 외에도 총 12편의 논저가 발간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2010년 이후 오늘날까지의 적용 및 성찰 시기로, 총 55편의 논저가 베누티의 번역이론 연구에 할애되었다. 통계상으로 베누티의 번역이론에 대한 국내 연구는 2007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3건으로 연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가 번역서가 출간된 2006년에는 연구의 공백기를

-
- 19) 김지원은 「번역 연구의 발전과 번역학의 현황」이라는 논문에서 베누티의 1995년 저작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베누티의 주장을 소개하였다.

앙드레 르페브르는 번역은 비평이나 역사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다시 쓰기’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1992: 13-14). 이것은 로렌스 베누티 (Lawrence Venuti)에 따르면, “이중적 글쓰기”로서 “외국 텍스트를 자국 문화가치에 따라 다시 쓰는 것”(312)이다. (2000: 24)

해당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change in contemporary thinking about translation finally requires a change in the practice of reading, reviewing, and teaching translations. Because translation is a double writing, a rewriting of the foreign text according to domestic cultural values, any translation requires a double reading—as both communication and inscription. (Lawrence Venuti,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5, 312)

경험하였으나, 다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연 4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연 3.9건의 연구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연구자들 가운데 윤성우가 단독 또는 이향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총 9건의 논저를 발표하여 베누티에 관한 한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기록하였는데, 그의 연구는 번역철학의 관점에서 언어적 정체성과 번역 윤리에 대한 베누티의 입장을 비교 분석한 것들이다. 한편, 이상원의 「베누티의 이국화와 자국화, 그 적용을 위한 고찰」(2010)은 국내 번역학계가 벗어나지 못한 서구 이론에 대한 편향성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베누티의 이론을 “적용하기에 앞서 그 논의의 내용과 상황 맥락을 좀 더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124)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밖에 선영아의 「동화의 미학과 차이의 윤리: 문학 번역의 두 가지 명제」(2008), 이미경의 「베누티의 차이의 윤리와 이국화 번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베르망의 관점으로」(2009), 조재룡의 「번역의 윤리: 이해와 해석, 번역가의 소임, 낯설음에 대한 비판적 고찰」(2011), 이영훈의 「번역학에서 '도구주의'란?: 베누티의 *Contra Instrumentalism* 비판적 읽기」(2022) 등 역시 우리 학계의 귀중한 성과들로 꼽을 수 있는데, 이는 대다수의 국내 연구가 베누티의 번역이론을 다소 맹목적으로 추수하고 적용한 반면에 이들 논문은 그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3.2 베누티의 번역이론의 국내 수용 양상

베누티의 번역이론이 국내에서 수용되고 소비되어 온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국내 학술장의 구성원들인 연구자들이 베누티를 소개하는 방식들을 일별해보기로 하자. 베누티는 한편으론 “최근 영미 번역 이론의 한 정점”(선영아 2008: 196)이자 “포스트 식민주의 번역관의 정점에 도달한 번역 이론가”(이미경 2009: 84)로서 그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명시적으로 언어적 정체성의 문제를 번역을 통해 제기하는 학자”(윤성우 2010: 130)이면서 “문화·정치적 방향의 연구를 추구하는 번역가 겸 번역 이론가”(김가희 외 2017: 322)로서 그의 연구 지향이 확실하게 인식되고 있다. 더불어, 그는 “영미문화권의 자국 중심적인 ‘자국화 번역’을 비판”(이지영 2022: 84)하였고, “미국 대학을 기반으로 교수이자 번역가로 활동하면서 미국식 관행을 비판”(양혜원 2023:

121)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의 이론에 대한 대척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출판장의 구성원들, 즉 베누티의 저서를 번역한 번역자와 번역서의 서평자들에게 비친 베누티의 면모는 어떠하였는가? 열린책들에서 출판된 『번역의 윤리: 차이의 미학을 위하여』의 「옮긴이의 말」에는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이자 진보적인 번역 이론가”(임호경)로 소개가 되었고, 번역서에 대한 세 편의 서평에는 각기 “번역학 분야의 진보적 이론가 및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교 교수”(김정선 기자, 연합뉴스), “미국 템플대 영문학 교수이자 번역 ‘실천가’”(박여성 교수, 서울신문), “전문 번역가이자 번역학자”(김성현, 블로그)로 제시되어 있다. 요컨대, 학술장 밖의 출판장에서 베누티에 대한 인식은 그의 직업 및 활동에 초점이 맞춰지면서도 진보적이고 실천적인 그의 성향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가 조사한 베누티의 이론 관련 학술 논저들을 대상으로 그의 번역이론 가운데 어떤 요소가 국내 학술장에서 수용되었고, 각각의 요소가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총 70건의 학위논문, 학술지 수록 논문, 북챗터, 학술대회논문집 수록 논문을 분석한 결과, 그중 60%에 가까운 40건이 ‘domestication/foreignization’ 번역전략을 번역 분석에 적용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번역의 윤리’(7건), ‘번역가의 비가시성’(6건), ‘번역철학’(3건) 및 ‘잔여태’(3건), ‘언어적 정체성’(2건) 순으로 베누티의 이론소들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 ‘저항하는 번역’, ‘재번역’, ‘번역의 자율성’, ‘문화적 귀속’, ‘상호텍스트성’, ‘번역 스캔들’, ‘도구주의 비판’, ‘탈식민주의’, ‘베누티의 번역이론 일반’을 주제로 한 논문들도 각기 한 건씩 발견되었다.

이제 베누티의 저서 번역이 이루어진 국내 출판장에서 베누티와 그의 책이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었는지를 역자 후기와 서평들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베누티를 번역한 임호경은 번역학과는 무관한 프랑스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문학 전문번역가로 활동 중이며, 베누티의 해당 저서를 제외하곤 번역이론과 관련된 저작을 번역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임호경이 베누티를 번역한 것이 자신의 직업적 행로나 본인의 학술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방증인 셈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번역가 임호경으로 하여금 베누티의 *The Scandals of Translation*에 관심을 갖게 하였고, 더 나아가 이 책의 번역을 감행하도록 한 것인가? 물론, 임호경의 이 같은 번역 실천

에 출판사 열린책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작용했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번역서 『번역의 윤리: 차이의 미학을 위하여』가 열린책들의 출판 목록 내 주변부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체계적 기획 하에 출판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쉽게 짐작된다. 그럼에도 임호경이 이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번역 실천을 정당화할 동기를 무엇이든 찾아내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우리는 역사 후기에 해당하는 「옮긴이의 말」을 검토하였다. 이 글(347-348)에서 임호경은 “베누티가 영미 사회에서 고발하고 있는 모든 <번역의 스캔들>, 즉 번역 및 번역가에 대한 폄하, 법적 홀대, 학문적 무관심, 상업적 착취 등의 양상은 바로 우리 사회에서도 조금도 다름없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론적 성찰과 윤리적 정리를 기다리는 술한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그리고 갈수록 <글로벌화>되어 번역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상황”에서 “이 베누티의 책은 우리에게 지극히 귀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실효성 있는 번역 이론과 견고한 번역 윤리”가 “현 상황에서 얼마나 시급한 작업들인가”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상기 인용에서 밑줄 친 부분들은 임호경이 번역학 전공자도 아닌 데도 자신의 번역 궤적과도 어울리지 않는 번역이론서를 번역하게 된 동기에 해당된다고 우리는 추정한다. 다시 말해, 번역가 임호경은 한국에서 번역과 번역가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각종 번역 스캔들이 만연하고, 이에 대한 학계의 성찰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베누티의 이 책이 경종을 울림으로써 실효성 있는 번역이론과 견고한 번역 윤리가 개발되길 소망했다고 볼 수 있다.

번역서 『번역의 윤리: 차이의 미학을 위하여』에 대한 서평은 이 책이 출간된 2006년에 작성된 3편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연합뉴스 김정선 기자가 작성한 12월 5일 자 기사는 “바람직한 번역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역사 후기의 내용을 요약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언론인으로서 번역과 번역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주대 독일학과 박역성 교수가 작성한 12월 9일 자 서울신문 서평은 “원작 독창성 깨야 번역이 산다”라는 제목하에 번역에 대한 홀대와 차이의 윤리를 중심으로 베누티의 핵심 의도를 제시한 후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독일에서 번역학 및 텍스트 언어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주로 기호학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번역학 관련 저술도 발표한 바 있는 그는 별다른 근거 없이

베누티를 “로고스와 파토스, 에토스 사이의 갈등과 그 극복을 고민해 온” 인물로 묘사하고, 이 책을 “특히 이론에만 경도되어 정작 번역은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력히 추천한다”고 함으로써 순수 번역이론가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끝으로, 12월 9일 네이버 블로그에 최종적으로 올라온 김성현의 감상평은 ‘번역의 종속 이론’ ‘좌파적 관점’ 등의 표현을 통해 베누티와 그의 이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평가를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3.3 베누티 이론의 굴절 및 변형

사회학자 이상길(2011: 242)은 부르디외의 이론이 한국의 학술장과 지식장으로 옮겨오는 가운데 어떻게 굴절(réfraction)²⁰⁾을 경험하였는지를 분석하면서 굴절이 “단순히 특정한 텍스트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정보의 손실, 뉘앙스의 차이, 문맥의 변이 등만을 가리키지 않”으며, “텍스트가 겪는 물질적 존재양식상의 변형으로부터 해석적 참조체계의 이동, 새로운 논쟁구도와 지적 위계체제로의 편입,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인 의미지평의 변화까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그는 “굴절이 규범적인 개념이 아닌, 기술적인 개념”이며 따라서 “텍스트의 이전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일정한 굴절을 수반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사실, 부르디외(2002: 5)에 따르면, 외국 저자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산지 생산장에서 무엇을 말하였는가라기보다는 차라리 수입지 수용장에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게 하였는가이다. 이에 우리는 베누티의 저서의 번역과 베누티 관련 학술 연구를 대상으로 그의 번역이론이 국내에서 어떠한 굴절을 겪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출판된 베누티의 저서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의 한국어 제목은 『번역의 윤리:

20) ‘굴절’은 광학 물리학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부르디외에게서 이것은 외래의 결정들이나 제약들을 하나의 장(champ)이 자신의 고유한 내적 논리에 따라 표현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 개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지철 사피로가 책임 편집한 『부르디외 국제사전(Dictionnaire international Bourdieu)』(2020)의 해당 항목을 살펴보기 바란다.

차이의 미학을 위하여』이다. 이때 한국어 제목은 원저에 대해서 이중의 왜곡을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영어판의 주 제목인 *Scandals of Translation*이 한국어판에서 누락됨으로써 “번역이 스캔들의 대상”이란 사실이 한국 독자들에게 은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베누티는 이 책을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scandal이라는 어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로 시작하여 *The Scandals of Translation*이 갖는 정확한 의미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 제목은 베누티의 이러한 노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제목이 갖는 상징성 차원에서 ‘번역의 스캔들’이라는 원래 기대되었던 제목이 일으킬 충격을 사전에 배제시킨 셈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식의 왜곡이 일어난 것인가? 사실, 『옮긴이의 말』에서 번역자 임호경은 “이 책의 원제는 *The Scandals of Translation*”임을 밝힐 뿐만 아니라, 번역 작업이 끝나갈 무렵 어느 초대형 베스트셀러²¹⁾의 한국어판 번역자가 유명 아나운서가 아닌 무명의 대리 번역가였음이 밝혀져서 불거진 스캔들을 통해 번역을 둘러싼 어두운 모습이 한국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번역자는 원작 본문 내 scandal이라는 어휘에 대해 자신이 왜 ‘추문’이나 ‘물의’ 대신에 ‘스캔들’을 역어로 사용했는지(9쪽, 역주 1) 해명하였으며, “이 책에서 <스캔들>의 의미는 중의적이다 첫째는 번역을 통하여 사회와 제도 속에 숨어 있는 스캔들을 폭로할 수 있다. 둘째는 번역 자신이 기존의 가치와 규범에서 일탈하는 차이들을 도입함으로써 스캔들의 대상이 될 수 있다”(144쪽, 역주 25)는 친절한 설명을 본문에서 덧붙이기까지 하였다. 사실, 출판사의 영리적 차원에서 『마시멜로 이야기』의 번역자를 둘러싼 스캔들을 베누티의 한국어판 저서를 판매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번역의 스캔들』이라는 제목을 채택하지 않은 데에는 도리어 이러한 제목을 통해 번역을 둘러싼 어두운 모습들이 한국 사회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출판사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국어판 제목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원작의 부제에 포함된 ethics가 번역서의 본제(‘번역의 윤리’)를 구성한 후 한국어판 부제는 ‘차이의 윤리’가 아닌 ‘차이의 미학’으로 탈바꿈하였다. 이러한 변형은 다시 한 번 베누

21) 호아킴 데 포사다(Joachim de Posada)가 쓴 자기 계발서 *Don't Eat the Marshmallow ... Yet!: The Secret to Sweet Success in Work and Life*의 한국어판을 가리킨다. 한국어 제목은 『마시멜로 이야기』였다.

티의 의도를 왜곡하게 되는데, 이는 책의 본문에서 베틀이 수용지 대중의 미학적 가치를 내세워서 원작의 낮춤을 은폐하는 심미화 번역 경향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제가 ‘번역의 미학’이 아니라 ‘차이의 미학’이 됨으로써 외래의 미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번역이론의 관점에서 ‘차이의 윤리’에 비해 ‘차이의 미학’이라는 표현은 덜 강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옮긴이의 말」에서 번역자는 베틀의 ‘차이의 윤리’ 개념을 지나치게 상대화하여, 한국의 상황을 영미권의 식민지 상황과 동일시함²²⁾으로써 베틀의 메시지가 갖는 선명함을 반감시키고 있다.

한국 학술장, 특히 번역학장에서도 베틀의 번역이론이 겪는 굴절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베틀이 파악하는 서구의 두 핵심적 번역 전략, 즉 domestication/foreignization을 국내에서는 대체로 자국화(自國化)/이국화(異國化)로 옮김으로써 원 술어에는 없는 국어(國語) 또는 국가(國家) 이데올로기를 번역전략과 연계시키고 있다. 사실, 같은 한자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에서는 주로 각기 归化/异化(중국), 同化/異化(일본)가 사용됨으로써 한국과는 달리 국어/국가 이데올로기의 개입이 방지되고 있다. 물론, 베틀의 번역이론이 국내에 유입된 초기에는 현지화/타지화(성승은 2005), 귀화법/이국화(김재희 2005) 등이 이근희(2005)가 제안한 자국화/이국화와 혼용되었으며, 베틀을 번역한 임호경(2006)과 선영아(2008)는 자국화/외국화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국화/이국화가 국내 학술장 내 상용 술어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졸고

22) “이 책 전체를 통해 즐기치게 울리고 있는 베틀의 주장은 다수에 저항하는 소수화 지향의 번역 윤리, 다시 말해서 <차이의 윤리>이다. 하지만 베틀은 이러한 번역 윤리는 결코 일반화될 수 없음을 경고한다. 즉 지역과 상황에 따른 유연한 번역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이의 윤리는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익과 문화적 나르시시즘을 강화하는 경향이 강한 영·미 등 식민 분국들에 특히 적용되어야 할 윤리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유창한 번역>이라고 하여 반드시 나쁠 것은 없다. 그것은 오히려 외국 문화에 대한 활발한 수용을 가능케 하여 문화적 변혁을 촉진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처럼 번역물의 생산 및 소비가 활발하며, 문화적 <사대주의>가 강한 지역에서는 이런 유창한 번역이 자국의 문화적 나르시시즘을 조장할 위험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오히려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 우리 문화를 자연스럽게 외국문화에 대해 열리게 하여 풍요롭게 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사실은 근대 이후 우리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347-348)

(이영훈 2014)²³)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어 번역 개념에 ‘국가’ 관념이 도입된 것은 1920년 전후 일본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이후 1980년대 말까지, 각종 한국어사전을 통해 확인되듯이, 국어 개념이 ‘번역’이라는 어휘의 정의의 일부를 이루다가 1990년대 초부터 서서히 배제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 상용 한국어대사전들에서는 국어 이데올로기가 번역의 정의에서 완전히 탈색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국내에선 역시 일본을 통해 20세기 초에 들어온 ‘국역(國譯)’이 ‘일본어로의 번역’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한국어 또는 한글로의 번역’을 뜻하는 술어로 사용되다가 요즘은 일반 어휘 ‘번역’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자국화(自國化)/이국화(異國化)라는 술어는 베누티의 의도와도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제화 시대에 뒤떨어진 일국일어주의(一國一語主義)의 잔재로 오인될 수 있기에, 우리는 이를 지양하고 그 대신에 같은 한자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의 역어를 혼합하여 귀화(歸化)/이화(異化)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 밖에도, 국내 학술장에서 domestication/foreignization 두 개념의 적용 방식²⁴)과 관련하여 왜곡 현상이 발견된다. 물론, 이러한 굴절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베누티는 자신의 1995년 저작 *The Translator's Invisibility*의 2018년판 새 서문(‘Introduction: Conditions of Possibility’, viii-xix)에서 1995년 저작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선별적이면서도 다르게 이해되고 있음을 밝히며, 과거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추가적 연구를 촉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이론의 세 가지 핵심 주장들을 명쾌히 제시하였다.

1. 모든 번역은, 장르나 텍스트 유형과 상관없이,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기록하고자 하는 번역을 포함하여, 근본적으로 원천 텍스트를 귀화하는 (domesticate) 해석 행위이다. (xii)
2. ‘domesticating’과 ‘foreignizing’이라는 술어들은 번역에서 사용된 특정 어휘 상의 선택이나 담화 전략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

23) 「번역과 국어: 개념사적 고찰」, 『통번역학연구』 18(3): 119-151.

24) 서구 번역학계 내에 베누티의 번역이론의 핵심인 foreignization 개념이 갖는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비판이 존재한다(Kjetil Myskja 2013). 그럼에도 그가 제시한 두 가지 번역 전략 domestication/foreignization은 국내외의 번역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력과 인정이 수용 문화에 달려있는 번역된 텍스트들의 윤리적 효과들을 나타낸다. (xiii)

3. 번역가들만 해석 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독자들도 또한 번역된 텍스트들의 윤리적 효과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번역들을 번역으로, 고유한 권한을 가진 텍스트로 해석하는 법을 학습해야만 한다. (xvi)

베누티의 위 주장들 중 처음 두 가지가 귀화(domestication)/이화(foreignization)의 이해와 관련되는데, 상기하자면 두 개념은 국내 학술장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베누티의 번역이론소들이다. 이 두 가지 번역 전략에 대한 베누티의 입장 표명을 통해 우리는 국내 학술장에서도 이들이 굴절되고 변형되어 사용되어 왔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국내 번역학자들은 모든 번역이 심지어 원문 지향적 번역조차도 수용장의 구조에 맞추어 원문을 재해석하는 귀화 행위임을 무시하고 번역텍스트들의 평가와 분석에서 귀화와 이화의 사례들을 동시에 찾아내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강수정의 2010년 논문은 “베누티의 자국화, 이국화 번역전략을 결합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문화번역전략을 제시”(13)하겠으며 의도를 분명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베누티의 두 가지 번역전략을 번역 분석에 적용한 여타 연구들에서도 우리는 두 유형의 번역 사례들을 동시에 찾으려는 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 조사에 따르면, 베누티의 두 개념을 적용한 국내 연구들에서 귀화와 이화를 국지적 번역(local translation) 전략, 즉 번역할 때 행해지는 특정 어휘나 담화의 선택에 한정하여 설명하였지, 전면적 번역(global translation) 전략, 다시 말해 번역텍스트가 총체적으로 수용자들에게 미치는 윤리적 효과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귀화와 이화 전략을 모어 텍스트를 비모어로 옮기는 L2번역에까지 적용하는 납득할 수 없는 연구 사례(오미형 2007)도 없지 않았다.

이같은 굴절의 사례들은 필경 동서고금의 전형적인 국지적 번역 기법의 의역/직역을 귀화/이화와 동일시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사실, 이상원도 이미 2010년 논문에서 동일한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국내에서 “자국화와 이국화는 번역에 관련된 가장 해묵은 논의, 즉 “직역이 옳

은가, 의역이 옳은가’와 맥을 함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118)이 있는데, 이로 인해 국내 연구자들이 ‘자국화’와 ‘이국화’를 양자택일의 전략으로 다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정리하자면, 지난 25년간의 한국 번역학사에서 서구의 대표적 번역학자인 로렌스 베누티의 번역이론은 2005년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전이 및 수용되어 지금까지 총 70건의 학술 논저와 3건의 번역물을 생산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술장 내 수용은 베누티가 제안한 두 가지 번역 전략인 귀화(domestication) /이화(foreignization)에 집중되었고, 이 두 개념이 선택 가능한 국지적 번역 전략으로 이해되는 굴절이 발생하였다. 한편, 출판장 내에서는 베누티의 번역이론서 네 권 가운데 1998년의 저서 *The Scandals of Translation*과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에 실린 두 편의 논문만이 번역되어 수용되었는데, 특히 번역서의 제목이 원제와는 현저히 어긋나는 왜곡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베누티의 번역이론의 국내 수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그가 단독 집필한 총 4권의 번역이론서들 가운데 기존에 전문 문학번역가에 의해 번역 출판된 1998년 저서 외에 나머지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1995), *Translation Changes Everything* (2013), *Contra Instrumentalism* (2019)의 번역을 국내 번역학 연구자들에게 제안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베누티의 번역이론의 총체적 면모가 전문 연구자들의 노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마찬가지로 차원에서 기존에 출간된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1998)의 재번역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어판의 제목을 원제에 가깝게 ‘번역 스캔들: 차이의 윤리’로 수정하는 한편, 기존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주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번역가 및 번역서 독자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번역이론과 견고한 번역 윤리를 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한국 번역학의 특수성에 기반한 연구 주제 및 방법론의 개발이라는 장기적 목표의 실현을 위해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베누티의 번역 이론에 대한 주

체적 수용과 비판적 접근으로 국내 번역학자들의 연구 방향을 유도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수정 (2010) 「중한 번역에서 문화소의 부등성에 따른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11(4): 7-23.
- 김가희, 박효진, 박윤희 (2017) 「베누티의 소수화 번역 - 또 하나의 명칭 ‘이국화’」, 『철학·사상·문화』 25: 320-338.
- 김재희 (2005) 「충실성에 의거한 문학 텍스트 번역 전략 연구 - 아·한 단편 텍스트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3(2): 75-86.
- 김지원 (2000) 「번역 연구의 발전과 번역학의 현황」, 『번역학연구』 1(1): 9-31.
- 모나 베이커 (편) (2009)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 한국번역학회 옮김, 파주: 한신문화사.
- 로렌스 베누티 (2006) 『번역의 윤리: 차이의 미학을 위하여』, 임호경 옮김, 파주: 열린책들.
- 선영아 (2008) 「‘동화(同化)의 미학과 차이(差異)의 윤리 - 문학 번역의 두 가지 명제」, 『번역학연구』 9(4): 195-219.
- 선영아 (2013) 「문화전이로서의 번역 - ‘전이 이론’을 중심으로」, 『세계문화비교연구』 42: 149-172.
- 성승은 (2005) 「대상독자의 차이에 따른 번역전략 연구 -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7(1): 69-98.
- 양혜원 (2023) 「여성주의 번역 윤리와 Kyung-sook Shin/Chi-young Kim의 *Please Look After Mom*의 독자들」, 『여성학논집』 40(1): 115-157.
- 오미형 (2007) 「한국아동문학의 외국어번역에 있어 자국화와 이국화 - 『고양이 학교』 영역본 사례 연구」, 『연구동화와 번역』 13: 187-211.
- 윤성우 (2010) 「언어, 번역 그리고 정체성 - 베르만, 베누티 그리고 들뢰즈의 번역론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3(2): 121-140.
- 이근희 (2005) 『이근희의 번역산책: 번역투에서 번역전략까지』, 서울: 한국문화

사.

- 이근희 (2010) 「자국어 번역방법의 정의 및 범주화」, 『통번역교육연구』 8(1): 151-171.
- 이미경 (2009) 「베누티의 “차이의 윤리”와 이국어 번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베르망의 관점으로」, 『번역학연구』 10(2): 83-104.
- 이상길 (2011) 「학술번역과 지식수용, 혹은 “이론은 어떻게 여행하는가?” — 피에르 부르디외의 경우」, 『언론과 사회』 19(4): 232-289.
- 이상원 (2011) 「베누티의 이국어와 자국어, 그 적용을 위한 고찰」, 『T&I Review』 1: 113-125.
- 이영훈 (2013) 「한국번역학사 기술을 위한 전제와 시론」, 『번역학연구』 14(2): 187-222.
- 이영훈 (2014) 「번역과 국어: 개념사적 고찰」, 『통번역학연구』 18(3): 119-151.
- 이영훈 (2022) 「번역학에서 ‘도구주의’란?: 베누티의 *Contra Instrumentalism* 비판적 읽기」, 『번역학연구』 23(5): 9-32.
- 이지영 (2022) 「문화적 귀속으로서의 번역 — 위화 소설 『제7일』 한역본 및 영역본 서평의 비교 분석」, 『T&I Review』 12(2): 79-104.
- 임호경 (2006) 「웁긴이의 말」, 로렌스 베누티, 『번역의 윤리: 차이의 미학을 위하여』, 임호경 옮김, 파주: 열린책들, 343-348.
- 조재룡 (2011) 「이해와 해석, 번역가의 소임, 낯섶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평문학』 42: 427-462.
- 채웅준 (2017) 「지식 수용과 번역의 사회적 조건: 들뢰즈 저작의 번역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31: 425-470.
- Afresne, Laurent, Clara Ruvituso and Gernot Saalman (2023) ‘Field Theory and the Circulation of Academic Knowledge’, in Wiebke Keim and Leandro Rodriguez Medina (eds) *Routledge Handbook of Academic Knowledge Circulatio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55-166.
- Albrecht, Jörn (2007) ‘La traduction des post-structuralistes français en allemand : un cas de « transfert culturel »? [프랑스 탈구조주의자들의 독일어 번역: « 문화 전의 »의 사례?]’, in Christine Lombez and Rotraud von Kulesa (eds) *De la traduction et des transferts culturels* [번역과 문

- 화 전이들에 관하여], Paris: L'Harmattan, 11-23.
- Berman, Antoine (1994) *Pour une critique des traductions : John Donne* [번역 비평을 위하여: 존 던], Paris: Gallimard.
- Bourdieu, Pierre (2002) 'Les conditions sociales de la circulation internationale des idées' [관념들의 국제적 순환의 사회적 조건들],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145: 3-8.
- Mykja, Kjetil (2013) 'Foreignisation and Resistance: Lawrence Venuti and His Critics', *Nordic Journal of English Studies* 12(2): 1-23.
- Palumbo, Giuseppe (2009) *Key Terms in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 Sapiro, Gisèle (ed.) (2020) *Dictionnaire international Bourdieu* [국제 부르디외 사전], Paris: CNRS Éditions.
- Sapiro, Gisèle, Marco Santoro, Patrick Baert (eds) (2020) *Ideas on the Move in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Paradigms and Theorists*,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 Schögler, Rafael Y. (2019) 'Peritexts, Positioning and the Circulation of Academic Thought', in Rafael Y. Schögler (ed.) *Circulation of Academic Thought: Rethinking Translation in the Academic Field*, Berlin: Peter Lang, 95-124.
- Susam-Sarajeva, Şebnem (2006) *Theories on the Move: Translation's Role in the Travels of Literary Theories*, Amsterdam and New York: Rodopi.
- Tian, Chuanmao (2010) 'Etymological Implications of Domestication and Foreignization: A Chinese Perspective', *Perspectives* 18(2): 79-93.
- Venuti, Lawrence (1986)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Criticism* 28(2): 179-212.
- Venuti, Lawrence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Venuti, Lawrence (2018)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1995), reissued with a new introduction in Routledge Translation Classics ser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蔣童 [Jiang, Tong] (2016) 『韦努蒂翻译理论的谱系学研究 [베누티의 번역이론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 北京: 商务印书馆.

<온라인 자료>

열린책들. <http://www.openbooks.co.kr/html/main/main.html>. 2023년 8월 5일 검색.

열린책들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열린책들>. 2023년 8월 5일 검색.

임호경 (번역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임호경_\(번역가\)](https://ko.wikipedia.org/wiki/임호경_(번역가)). 2023년 8월 5일 검색.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자정보. <https://www.kri.go.kr/kri2>. 2023년 8월 5일 검색.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2023년 8월 5일 검색.

Lawrence Venuti — Google Scholar. <https://scholar.google.com/citations?user=aNKm-vMAAAAJ&hl=en>. 2023년 8월 5일 검색.

Lawrence Venuti — Temple University, College of Liberal Arts. <https://liberalarts.temple.edu/academics/faculty/venuti-lawrence>. 2023년 8월 5일 검색.

Lawrence Venuti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Lawrence_Venuti. 2023년 8월 5일 검색.

Wu, Zhijie and Yuping Wang (2020) ‘China Question of Western Postcolonial Translation Theory’, *CLCWeb: Comparative Literature and Culture* 22(5). <https://doi.org/10.7771/1481-4374.3835>. 2023년 8월 10일 검색.

[Abstract]

Transfer and Reception of Venuti's Translation Theory in Korea

Yeong-Houn Yi
(Korea Univers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part of the systematic and critical review on the channels through which Western translation theories were introduced and accepted in South Korea, and the roles the theories played in the nation's 25-year history of translation studies. To this e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ransfer and reception of a leading Western translation scholar, Lawrence Venuti's translation theory in Korea. This research compiled and analyzed the previous studies on and translations of Venuti's theories based on: 1) the hermeneutic model of transfer presented by a sociologist, Pierre Bourdieu, 2) the literary transfer model of a translation scholar, Antoine Berman, 3) literature review. The analysis sheds light on the patterns of transfer and reception of Venuti's translation theories in the nation, and then looks into the refractions and transformations observed in the translated title of Venuti's book and in the application of the two translation strategies he proposed, domestication and foreignization.

Keywords: Lawrence Venuti, Reception, Transfer, Translation Theory, Translation Studies

주제어: 로렌스 베누티, 번역이론, 번역학, 수용, 전이

이영훈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정교수

erasme@korea.ac.kr

관심 분야: 번역개념사, 번역사회학, 번역비평

논문 투고: 2023년 11월 15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11월 30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12월 15일

게재 확정: 2023년 12월 18일